논어 6편 옹야 2장 · 원문·풀이

哀公問：「弟子孰爲好學？」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

독음 · 애공문 제자숙위호학 공자대왈 유안회자 호학 불천노 불이과 불행단명사의 금야즉무 미문호학자야

쉬운 풀이(요약) · 안회는 배움을 좋아하고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의 이른 죽음을 아쉬워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哀 슬플 애 애 / 公 공변될 공 공 / 問 물을 문 문 / 弟 아우 제

子 아들 자 / 孰 누구 숙 숙 / 爲 할 위 / 好 좋을 호

學 배울 학 / 孔 구멍 공 공 / 對 마주볼 대 대 / 曰 가로 왈

有 있을 유 / 顏 얼굴 안 / 回 돌 회 회 / 者 놈 자

不 아닐 불 / 遷 옮길 천 천 / 怒 성낼 노 노 / 貳 二의 갖은자 이

過 지날 과 과 / 幸 다행할 행 행 / 短 짧을 단 단 / 命 목숨 명 명

死 죽을 사 사 / 矣 어조사 의 / 今 이제 금 금 / 也 어조사 야

則 곧 즉 / 亡 망할 망 망 / 未 아닐 미 미 / 聞 들을 문 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